이번엔 목포 사립고서 시험문제 유출 파문

학생이 교사 연구실 컴퓨터에서 빼내…설치된 CCTV는 '가짜'
교육부 대책 발표 3개월만에 또 발생…학교측은 유출사실도 몰라
제보받고 뒤늦게 확인한 학교·전남교육청은 수사 의뢰조차 안해

목포의 한 사립고에서 최근 실시된 중간고사 시험문제 일부가 학생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에서 올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가 학부모·행정실장 공모 아래 통째로 유출되는 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긴급 대책을 발표한지 3개월만이다.

14일 목포경찰과 전남도교육청, 목포 A고에 따르면 시험지 유출은 지난 2일 오후 4시 10분께 이뤄졌다. 학교 별관 자습실에서 공부 중이던 2학년 학생 B군이 바로 옆 교사연구실 컴퓨터에서 영어 과목 문제 원안을 출력한 것이다.

이 학교는 과목담당 복수교사가 공동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교차 검증을 하는데, 당시 영어 교사 C씨는 컴퓨터와 연결된 외장하드에 문제 원안 11문제를 저장해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치러진 시험에서 유출된 11문제 가운데 10개가 그대로 출제됐고, 이 학생은 이전 시험보다 20점가량 오른 9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안팎에서는 B군이 유출한 시험문제 원안을 다수 학생들이 학원 등 외부에서 돌려봤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시험지 유출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B군 자술서와 영어교사 C씨 등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컴퓨터를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했다는 점, 프린트 출력 흔적 조사 결과 B군이 시험문제 원안 출력 전 중간고사에 대비해 여러 유인물을 출력한 사실, 경찰 수사 착수전 해당 교사의 추궁을 받고 유출 사실을 실토한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학교측은 오는 16일 2학년 영어과목 재시험을 치른다.

학교 측은 시험문제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 6일께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지난 2일 오후 문제 유출이 이뤄진 다음 5일 시험을 봤고 '시험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질책성 제보를 받고 문제의 컴퓨터 출력 내역을 확인한 뒤 이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시험문제 보안관리에 실패한 교육당국은 사후 대처도 엉망이었다. 시험문제 유출사실을 6일 확인한 학교측도, 학교측으로부터 7일 보고를 받은 전남도교육청도 경찰이 자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난 7월 광주 사립고 시험지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내놓은 시험지 유출 근절 대책도 공염불이 됐다. 기존 대책이 시험문제 출제 이후부터 시험인쇄, 실제 시험까지의 대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시험문제 원안 검토 단계에서 유출됐다는 점에서다.

영어교사가 쓰던 컴퓨터가 놓인 교사연구실에 설치된 CCTV가 모형이 아니라 진짜였더라면 학생의 범행 의지 자체를 꺾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다. 학교 관계자는 "시험문제 보안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을 통감한다. 여러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없었던 이유는 학교 개교기념일 등 행사가 많았던데다 수사의뢰를 생각할 즈음 경찰 자체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목포=김준석·김병관 기자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2순환도로 '뇌물 복마전'

현금 3억·차량 받은 관리업체 전 대표 구속

경찰, 자금 흐름 추적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권을 대가로 지난 8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자의 혐의가 밝혀진 데에 이어, 순환도로 관리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실소유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과 차량을 받는 등 뇌물 상납구조가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하청업체 실소유주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2011~2017년 순환도로 시설관리 업무 도급 계약을 갱신하는 대가로 하청업체 실소유주 A씨로부터 차명 계좌를 이용해 3억여원의 현금을 수차례에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았고, 5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도 A씨로부터 제공받아 업무용으로 타고 다녔다.

경찰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없는 하청업체가 순환도로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하청받았다는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실소유주 A씨가 정씨에게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도 불구속 입건하고, 정씨가 3억원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 계약 갱신에 관여했거나 금품을 수수한 다른 혐의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에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요금 징수 업체로 선정 받으려고 7200만원을 2순환도로 업무 담당 광주시 공무원에게 준 혐의로 업자 김모(52)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광주시와 2순환도로 1구간 운영업체인 맥쿼리와의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잘 풀리도록 해주겠다"며 협상 자문사로부터 13억원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공무원은 지난 3월 '협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당시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거래 등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했지만, 절차상 합법적으로 이뤄져 불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안 압해도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 2명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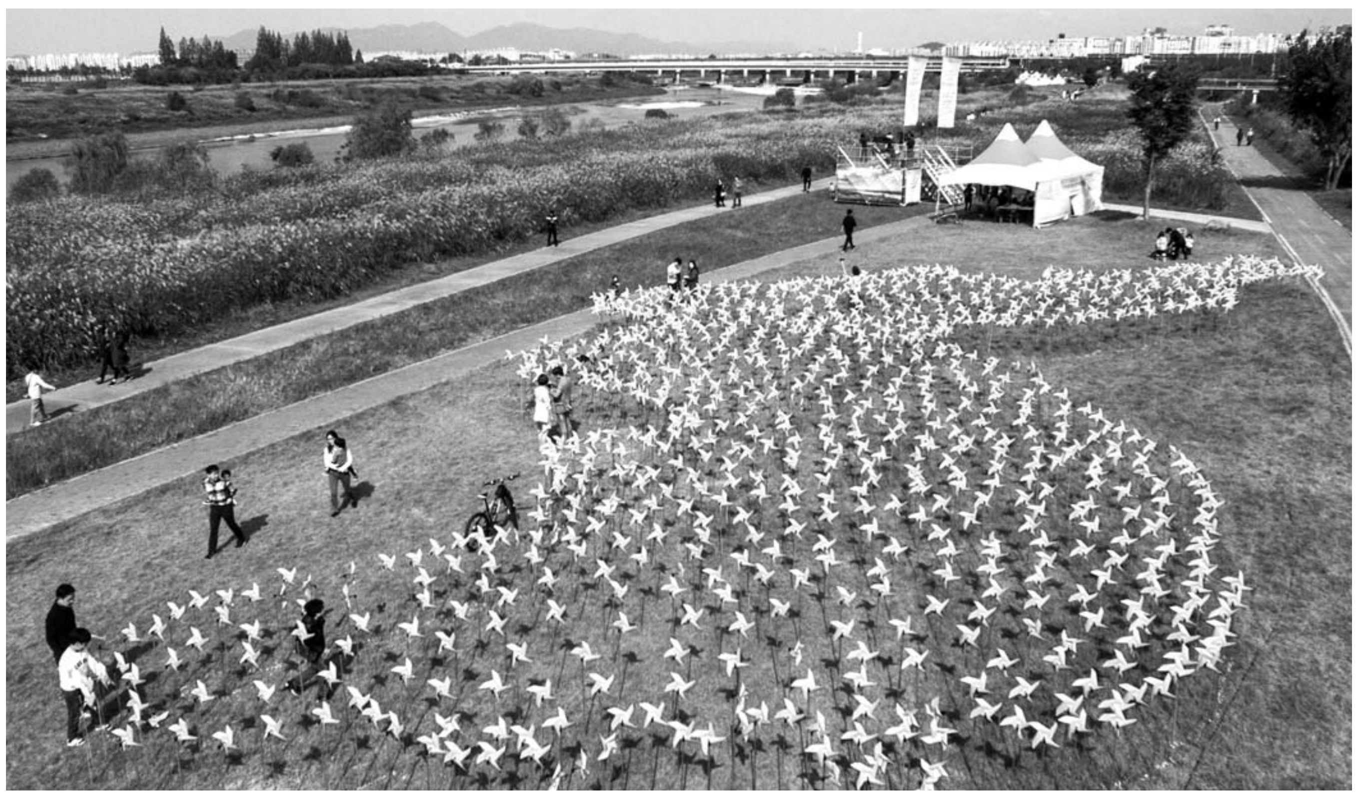
14일 오후 4시30분께 신안군 압해도 대천리 광립선착장 앞 500m해상에서 어선 A호(0.5t, 승선원 2명)와 어선 B호(0.4t, 승선원 3명)가 충돌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은 경비정 1척, 연안구조정 1척, 서해특수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승선원을 구조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호에 승선하고 있던 김모(여·79)씨 등 2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창사66주년 광주일보



평화통일 염원 1000개 바람개비 14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행사장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1000개의 바람개비가 설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장성 축제장 트럭사고 관광객 5명 부상

장성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께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축제장에서 1t 트럭으로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반모(8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고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최모(여·40)씨 등 관광객 2명이 무릎과 골반 등이 골절됐으며, 다른 관광객 3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다는 것을 액셀러레이터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중 음주 차량 돌진 1명 부상

14일 오전 10시20분께 전북 익산시 부송동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현장에서 술 취해 카니발 차량을 몰던 A(40)씨가 참가 선수 B(29)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팔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8%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마라톤 코스 주변에 설치된 교통차단 시설을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5·18 참여 시민 2명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법원 "헌정 수호 정당한 행동"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법 등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시민 2명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정모(74), 최모(6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토대로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 시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과 관련된 행위,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정씨는 1980년 5월 16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전남대학생 등 2만여 명이 참여한 시국 성토대회와 횃불시위에 동참해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고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같은 해 5월 26일까지 시국 성토대회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980년 5월 23일 광주 원진교에서 무장한 시민군이 탄 시위버스에 탑승해 차량 시위에 동참하고 같은 날 오전 황금동 거리에 고장 나 방치된 승용차를 시민들과 밀고 가 수리해 시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술 취해 욕설·행패 부리고 여종업원 성추행까지

쌍나팔

○…술에 취해 바(Bar)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20대 여종업원의 가슴에 손을 댄 50대가 경찰서행.

○…1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50)씨는 이날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술집에서 맥주 1병을 마신 뒤 여 종업원 B(24)씨가 "이미 많이 취했다"며 술을 달라는 주문을 거부하자 1시간 가까이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

○…이날 A씨는 B씨에게 "네가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일한다"며 막말을 하고 손가락으로 B씨의 가슴을 4차례 찌르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 원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 지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